

지역 매아리

국민 안전의 공적 가치 실현

정읍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

정읍시는 최근 제정사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 예외축산과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축산업에 대한 설명은 축산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강사로 나선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발전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외축산 정읍과 동물복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2019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축산업의 4대 문제점(분뇨·약취·질병·축산물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예외축산 청정 정읍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신정동에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확정

정읍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전체 7만8천여㎡의 부지에 3만16천여㎡ 규모로 조성된다.

3만17천여㎡의 부지에는 전기안전연구원의 전기안전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이전하는 교육원은 교육관과 생활관, 직원 숙소, 다목적교류센터 등 연건축면적 1만4천여㎡의 규모로 신축된다. 교육관은 매주 200여명의 전기안전 관련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상 4층 연면적 4천9백㎡ 규모로, 생활관은 지상4층 연면적 7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숙소를 지상 3층 연면적 6백㎡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기안전

관련 인적 교류와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목적교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원 건립 담당자는 컨설팅, 설계, 현상공모, 설계용역, 신축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5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공사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제재 예방을 위한 전력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의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안전연구원 실증센터에는 케이블 무장점 검사 시험장, 태양광 시험장,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등 전기안전과 관

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이 들어서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에 대한 실증 시험, 전기화재에 대한 종합 실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향상, 미래 증장기 핵심기술에 대한 사전검증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재생 실증설비 등 8종에 대해 7월까지 정읍 신정동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실증시험장'은 설계현상 공모와 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원 이전은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현재 교육 인원 대비 1.5배가량 늘어난 매주 150여명의 교육원 교육이 진행되며 연간 5천여명의 교육원 방문이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최종 선정

정읍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정읍 제3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 제3산업단지는 국비 지원,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관련 정부 합동 공모사업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국비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 평가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업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심의를 거쳐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5개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최종 확

정했다. 정읍시는 활력이 솟는 '쟁고'를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목표는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증대의 거점화, 산업단지 경쟁력 및 역량강화,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활력 증진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6개 세부사업 노상주차장 확충 및 인도정비, 친환경 녹색단지 공원정비, 노후 공공용수 공급시설 정비, 활력문화거리조성, 근로자 복지센터 및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공모 신청했다. 정읍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정읍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해 노후거점산업법에 따라 연차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을지태극연습 진행

'2019을지태극연습'이 27일부터 나흘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군민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형 연습을 진행한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2019 을지태극연습을 행정기관, 주요 유관기관 등과 3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고창군 을지태극연습에는 군민 체력 연계 연습이 중점적으로 펼쳐진다.

연습 3일차인 오는 29일에는 고창 공설 운동장에서 7개 기관과 참관 주민 등을 포함해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시범식 실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방독면을 착용해 보고 정화통을 교체하거나 소화기 사용해 보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위기 상황에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염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국가 위기 대응 연습으로 범국가적 대형복합재난 위기관리 역량 강화, 2부는 전시전환대비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고창군 김호겸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위기대응 종합훈련으로 실시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중학생 60명이 최근 '어서와, 수원은 처음이지?' 라는 테마로 수원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서와, 수원은 처음이지?'

정읍-수원 우호교류 사업 추진... 정읍청소년 60명 수원시 방문 체험

정읍시 중학생 60명이 최근 '어서와, 수원은 처음이지?' 라는 테마로 수원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원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읍 청소년들의 역사문화체험은 지난 1월에 맺은 청소년 우호 교류 협약 이후 첫 번째 수원 방문이다. 정읍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예술인과 함께하는 화성행궁 체험, 청소년

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 놀이기구 체험, 삼성노베이션 뮤지엄 관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전자제 관람, 박람회 프로그램(멘토특강-순연재 편) 등 참여 활동으로 진행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수원의 다양한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교류는 정읍 청소년들에게 뜻깊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역사적

으로 의미 있는 수원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수원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2박3일 동안 수원의 청소년 60명을 초청해 내장산역사문화탐방과 동화농민혁명유적지, 태산선비문화권 탐방,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양질의 부안형 일자리 창출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 수소산업 중심 미래성장 동력사업 육성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부안형 일자리를 창출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7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중 연석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만큼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안군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자부는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금융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한 700억원 규모의 예산과 타 부처의 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익현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움직임에 맞춰 수소산업을 통한 양질의 부안형 일

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내년에 20개 지자체를 높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안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며 "부서장 책임 하에 주요 사업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연탄재 시인 안도현 작가 특강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은 오는 31일 저녁 7시 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연탄재 시인 안도현 작가를 초청하여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안도현 작가는 1981년 '낙동강'으로 등단한 이후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연어', '서울로 가는 전봉준'

의 수많은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강연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신작 '남방큰돌고래'를 주제로 사람들에게 의해 불법으로 포획되었던 자유를 찾은 돌고래 '체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